

**‘네파몰’ 오픈 이벤트, 총 100만원 구매자 중 추첨 통해 해당제품 증정**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자사 브랜드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한 온라인 통합몰인 ‘네파몰(www.nepamall.com)’을 오픈하고 1000만원 ‘장바구니 이벤트’를 21일까지 개최한다. 쇼핑몰 장바구니에 총 100만원의 제품을 담으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해당 제품을 증정한다. 총 소비자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100만원에 맞춰 담아야 한다.



## ‘막귀’에도 들리는 명품 사운드

### 컨슈머블로그

#### LG전자 ‘V20’

가수 호흡까지 들리는 오디오성능 “일반음원도 원음같은 음질로 재생” 넓게 풍경 담는 후면 광각렌즈도 굵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에 참전하는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이 베일을 벗었다. 신제품은 ‘오디오’와 ‘카메라’ 성능에 방점을 뒀다. 7일 서울 서초R&D캠퍼스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서 V20을 만져봤다.

조준호 MC사업본부장(사장은) 신제품에 대해 “오디오와 카메라 기능의 완성도를 높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즐겨 듣는 소비자라면 V20이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 현악기 등의 미세한 떨림이 귀에 들어왔고, 재즈나 팝음악을 들었을 때는 가수의 호흡소리까지 느껴졌다. 현장에 준비된 타 제품과의 비교 전시도 체험했는데, ‘막귀’인 기자가 듣기에도 타 제품보다 더욱 확 찬 듯한 음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소리로 변환해주는 ‘DAC’를 4개 탑재하고 유명 오디오 브랜드 ‘B&O 플레이’의 튜닝 기술력을 결합한 결과라는 게 LG전자 측의 설명. 다만 완벽한 음질의 차이를 경험하려면 하이파이 음원을 들어야만 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비트와 씬샘플링으로 스트리밍을 포함한



7일 신제품 발표회에서 LG전자 V20의 카메라 기능을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 V20은 오디오와 카메라 기능을 높인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막귀’인 기자의 귀에도 확 찬 듯한 음질이 느껴질 정도였다. 뉴스시스

일반 음원도 원음에 가까운 음질로 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후면과 기본 제공하는 이어폰에 B&O 플레이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는 점도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매력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과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후면엔 75도 화각 1600만 화소 일반 카메라와 135도 화각,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달렸다. 특히 이번엔 전면에도 120도 화각, 5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일반 풍경 뿐 아니라 셀카를 찍을 때도 좀더 넓은 풍경과 많은 인원을 촬영할 수 있었다. 후면 광각 카메라의 경우 발표회장 전경을 비

추차 마치 어안렌즈와 같은 효과도 나타났다.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사용자 경험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 스마트폰 화면을 분할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 기능도 그 중 하나다. 특히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끌어다 메시지 앱에 첨부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 밖에 화면의 베젤(테두리)을 최소화하고, V10보다 두께와 무게를 줄이는 등 디자인도 개선했다. 다만 외형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전자는 V20을 이달 말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하고, 이후 글로벌 시장에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금융소비자원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한도 설정해야”

### 과잉진료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과도한 의료쇼핑과 비급여항목 과잉진료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보는 실손보험의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금융원은 6월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병·의원의 과잉진료에 대해 파파라치 신고를 받아왔다. 접수된 사례를 통해 현재 실손보험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병·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병원에 가면 첫 질문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느냐?”이고, 엑스레이를 찍기도 전에 MRI부터 찍고 비싼 치료를 권유하면서 “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거나 첫 날만 의사가 진료를 하고 그 이후엔 진료 없이 주사치료만 하는 등 과잉진료 사례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과잉진료 때문에 실손보험의 손해를

은 2011년 122%에서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보험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했다. 최근에는 비급여 과잉진료 가운데 도수치료가 문제로 떠올랐다. 펜손으로 아픈 부위를 주무르거나 자극해서 변형된 뼈와 관절을 본래 위치로 되돌리는 의료행위지만 약용하는 사례가 유령처럼 났다는 것.

보험사들은 “비급여에 대한 병·의원들의 과잉진료가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의료업계는 “실손보험의 상품설계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상대방 탓만 하는 가운데 가입자들만 비싼 보험료를 내며 손해를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실손보험의 문제는 3가지 잘못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첫째 실손보험 상품설계 잘못. 비급여를 전액 보상하므로 비급여 과잉진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고 구조적으로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고 했

다. ▲둘째 실손보험은 동일한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입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있어 가입자 의지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고 덜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셋째 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실손보험을 의도적으로 약용하는 문제다.

금융소비자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첫째 실손보험 상품을 변경해 비급여 지급한도를 설정하고 급여부분에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둘째 실손보험 가입자 간의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 적용하고 ▲셋째 병원의 과잉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과잉진료 병·의원에 대한 제재와 인터넷을 통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진 기자 marco@donga.com

### 경제현장.jpg

### “천연 피톤치드로 성적 쑥” JW중외제약, 신개념 학습기 ‘휴 브레인’ 출시



JW중외제약이 수능시험 70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학습능률을 높이는 신개념 학습기 ‘휴 브레인’ 출시를 기념하는 제품설명회를 갖고 있다. 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까사미아 가구점에서 열린 행사다. ‘휴 브레인’은 해발 700m 높이에서 나오는 천연 피톤치드를 미세입자로 발산해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높여주는 제품이다. 국내최초로 교체 형태의 카트리지를 적용, 장시간 사용해도 피톤치드 고유의 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시스

## “유럽 해치백과 붙는다” ‘신형 i30’ 당당한 질주

전 부문에 현대차 최신기술력 집약 41개월만에 완성...오늘부터 판매



현대차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왼쪽)과 객진 부사장이 기본기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형 i30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현대차 준중형 해치백 i30 3세대 기본기 대폭 혁신, 유럽 해치백과 당당히 경쟁하겠다.”

현대자동차가 7일 서울 서초구 가빛섬에서 ‘신형 i30’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8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지난 2007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2011년 2세대를 거쳐 3세대 모델로 5년 만에 선보인 신형 i30은 디자인, 설계, 주행성능, 실용성, 안전성 등 전 부문에서 현대차의 최신 기술력을 집약한 프리미엄 퍼포먼스 해치백이다. 2013년 프로젝트명 ‘PD’로 개발에 착수해 41개월 만에 완성시켰다.

일반 강판 대비 무게는 10% 이상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을 기존 27% 대비 2배 가까운 53.5%로 확대 적용해 차량의 충돌 안전성을 끌어올렸다.전장 4340mm(기존 대비 +40mm)과 전폭 1795mm(+15mm)로 늘리고, 기존 모델보다 15mm 낮아진 전고와 25mm 늘어난 후드로 날렵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해치백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트렁크 용량은 기존 대비 17L 증가한 395L로 늘렸다.

전면부는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쇠물의 웅장한 흐름과 한국 도자기의 우아한 곡선에서 영감을 받은 ‘캐스캐이딩(Cascading) 그릴’을 현대차 최초로 적용해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캐스캐이딩 그릴은 향후 출시되는 현대차 전 차종에 적용될 예정이다.

신형 i30은 터보 엔진과 7단 DCT를

조합한 파워트레인,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개선된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MDPS)과 브레이크 등을 통해 다이내믹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환경을 선사한다.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인 현가장치도 개선했다. 기본 적용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급선회 및 험로 주행 상황에서도 뛰어난 승차감과 접지력으로 운전자의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브레이크 디스크의 크기도 전륜 305mm(기존 280mm), 후륜 284mm(기존 262mm)로 늘려 제동력을 강화했다.

정숙성도 높였다. 차체 측면의 A필라, B필라, 사이드실을 일체형으로 합쳐 각 연결부위 틈으로 생기는 미세한 소음을 없앴다. 또한 차체 부품수를 기존 418개에서 25% 감소한 314개로 줄여 부품 간 연결부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했다. 신형 i30의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가 2225~2515만원, 디젤 1.6이 2190~2615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법인폰 판매 과도한 지원...LG유플러스 과징금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함께 법인영업 부문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

2000만원과 함께 법인영업 신규모집 영업금지 10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 및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 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 대금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2000원 가량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사실 조사를 나온 방통위 직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영민 기자

## 비즈갤러리

### 롯데월드타워 ‘슈퍼문 프렌즈’ 추가설치



롯데월드타워는 송파구와 함께 7일부터 석촌호수 ‘슈퍼문’ 주변에 밤하늘의 별, 행성 등을 상징하는 여덟 개의 천체 조형물 ‘슈퍼문 프렌즈’를 추가로 설치해 볼을 밝힌다. 둥근 모양, 물방울 모양, 오프기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 여덟 개의 조형물로 ‘슈퍼문’과 함께 석촌호수 동호에 우주의 불규칙함을 상징하듯 불규칙하게 설치해 10월3일까지 매일 오후 6시~10시 사이에 석촌호수를 밝힌다. ‘슈퍼문’은 2014년 ‘러버덕’, 2015년

‘1600 판다’에 이은 롯데의 세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추석인 15일에는 ‘슈퍼문’이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문 나이트’를 진행한다.

### 파라다이스그룹,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파라다이스그룹은 6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효(孝) 드림’ 봉사활동을 펼쳤다. 추석맞이 ‘효(孝) 드림’은 파라다이스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전필립 회장을 비롯한 15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100명의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효(孝) 드림 봉사단은 총 14개의 조로 나눠 중구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등에 거주하는 100개 가구를 방문해 고기, 쌀, 김장 등이 담긴 선물세트를 선물했다.

### ‘HK여행작가카데미’ 수강생 모집

여행자가 양성 전문과정인 ‘HK여행작가카데미’가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해외취재 및 여행지에 기고할 기회를 준다. 9기에는 이병을 시인이 ‘바람이 분다, 사람을 여행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을 제작한 김진만 PD도 나서 오지를 여행하며 겪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의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총 12회 열린다.

### 한화리조트 경주, 투베이 스위트룸 론칭

한화리조트 경주가 고급화 한 신규 스위트(SUITE) 객실을 도입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확장형 거실 레이아웃으로 보훈호의 청량하고 맑은 이미지를 적

용한 포인트 컬러와 전통장호의 기하학적 살문양을 재해석해 북유럽 감각의 패턴으로 디자인했다. 피크니 분위기의 가구와 마감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고객 선호도가 높은 투 베이-투 베스 구조로 설계했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이용가능하다. 2018년 새롭게 선보이는 뉴브랜드 리조트 거처 해양형 리조트와도 연계 이용할 수 있다.

### K2, 유틸리티 디터처를 재킷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수면안대, 휴대용 배터리, 모바일 전용포켓 등 9가지 유틸리티 기능을 갖춰 일상생활은 물론 여행시 활용도를 극대화한 ‘어반 유틸리티 3L 디터처를 재킷(43만9000원)을 출시했다. 수납기능을 최대화한 9가지 유틸리티 기능을 하나의 재킷에 담아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용 소재가 포함된 선글

라스 포켓, 보냉포켓, 모바일 포켓, 여권 포켓, 펜·이펜 홀더와 함께 수면안대, 에어 북백, 휴대용 배터리가 포함된 포켓 등 다양한 유틸리티 기능을 갖춰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비즈니스 트립에도 유용하다.

양형모 기자

### G9 ‘보검이가 사는 곳 지구’ 프로모션

프리미엄 큐레이션 쇼핑몰 G9(지구)는 이른바 ‘보검매직’에 매료된 소비자들을 겨냥해 19일 오전 9시까지 ‘보검이가 사는 곳 지구’ 기획전을 연다. 박보검의 추천 상품공개 및 현재 박보검이 광고 중인 총 9개의 브랜드사 제품을 한 데 모아 할인가에 선보인다. 여기에 사용 금액 제한이 없는 10% 할인쿠폰 혜택도

라쉬반, 기능성 양말 ‘스마트 삭스’ 내바 스마트 언더웨어 라쉬반이 기능성 양말인 ‘스마트 삭스’를 출시했다. 소취성유 테오택이 20% 이상, 천연섬유 텐셀이 15% 이상 들어간 프리미엄 제품이다. 테오택은 강력한 소취기능을 지닌 섬유로 알모니아, 이소질초산, 노네날 등 신체에서 나는 모든 냄새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한다. 텐셀은 항박테리아 기능이 있어 무좀, 습진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수분 흡·배출율이 높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발목밴드를 접목해 혈액순환도 도와준다.

양형모 기자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